



5면

미래광역시 성장기반 조성 '집중'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음 1월 5일) 제34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미래 먹거리 바이오 대표 산업 육성 '전력투구'

김 지사, 미국 CES·보스턴 방문 후 세부사업 실천 중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등 앵커기업 유치 결실 맺기 시작

지난해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특화단지 지정에 올랐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는 바이오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올해 방위산업과 함께 집중 투자 분야로 내세우는 바이오산업은 전북자치도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김관영 지사가 올해 초 청원 대상 신년 시무식에서 방위산업과 함께 바이오산업을 핵심 추진사업으로 지목한 것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산업 시장의 투자 집중과 무공무진한 발전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성은 김관영 지사가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다녀온 후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도청에서 올해 첫 번째 투자 협약으로 바이오분야 오가노이드 바이오 플랫폼으로 글로벌 항암제를 개발하는 넥스트앤바이오에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내 첫 오

가노이드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전자 교정 및 줄기 세포 배양 기술로 인공혈액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인 (주)레드진과 투자협약으로 벌써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오가노이드 배양 원천기술을 가진 넥스트앤바이오는 전북대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전북대병원 오가노이드뱅크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환자대상 재생치료제 임상연구에 돌입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원광대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설치하고 레드 바이오 연구와 제품 생산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도내에 산재한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아, 이들을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대학의 바이오 연구 교수 및 연구원 등과 연계시켜 공동창업 또는 상품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치도내에는 국공립, 정부출연, 지자체출연 등을 포함해 총 55개의 연구개발(R&D) 기관이 포진해 있고, 이중 27곳이 바이오 관련 기관이다.

특히, 정부출연기관으로 정읍에 소재한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

개발의 중추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국내 최초 미국 FDA 적격비임상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협력센터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가 있다.

또한, 국가재난질병인 메르스, 신종플루 등 연구하는 전북대학교 부설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도 익산에 위치해 있다.

지난 5일에는 허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의공학·나노메디슨 연구소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MGH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허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 원광대 등 도내 대학과 MGH 연구소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강점으로 내세워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에 많은 수의 바이오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강점이다."며,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 개발 과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국내외의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취약계층 아동 자립지원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가입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 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2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던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기준이 주거·교

육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가입기준 연령도 0세로 낮아지는 등 대폭 완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가입 대상은 5,350명으로 증가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지원금 1:1 매칭을 통해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대상 아동이 18세가 되고 사용 용도가 충족되는 경우 만기 해지가 가능하며, 대학생활비나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0~17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이라면 가구 내 신청 인원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설 선물 포장용 스티로폼 정리 '분주'



설 연휴가 끝난 13일 전주리사이클링터운에서 직원들이 설 선물 포장용으로 들어온 스티로폼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공동 신청

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교육청, 운영기획서 등 첨부 이달 중앙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거쳐 내달 최종 지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13일 자치도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유아부터 고등분야까지 지역의 공교육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인재양성, 지역산업 일자리와 연계한 종합적 지원 정책이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와 지역협력체 협약서를 첨부해 지난 8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공모에 전북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주체가 돼 신청하는 3유형으로 참여하며,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도전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교육 국제화 등을 중점 전략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운영기획서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지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그간 '교육발전특구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시·군, 대학, 기업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사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최종 지정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이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특구당 30억에서 100억 규모의 교육부 특별교부

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범지역 운영은 3년이다.

나혜수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소통협력국장은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통해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사회, 15일 의대증원 반대 집회

전북에서도 오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를 위한 집회가 열린다.

13일 전북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북의사회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으며 참여인원은 100명을 등록했다.

이날 집회는 성명서 낭독 등 30여분간 선전전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